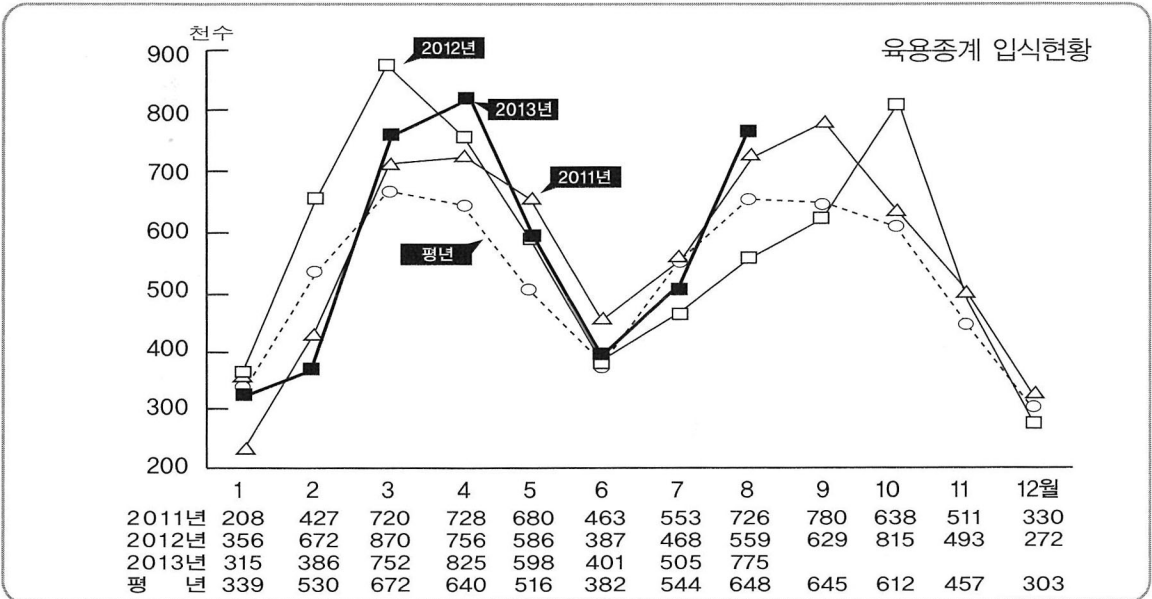




10월 닭고기 수급 전망

1. 육용종계 입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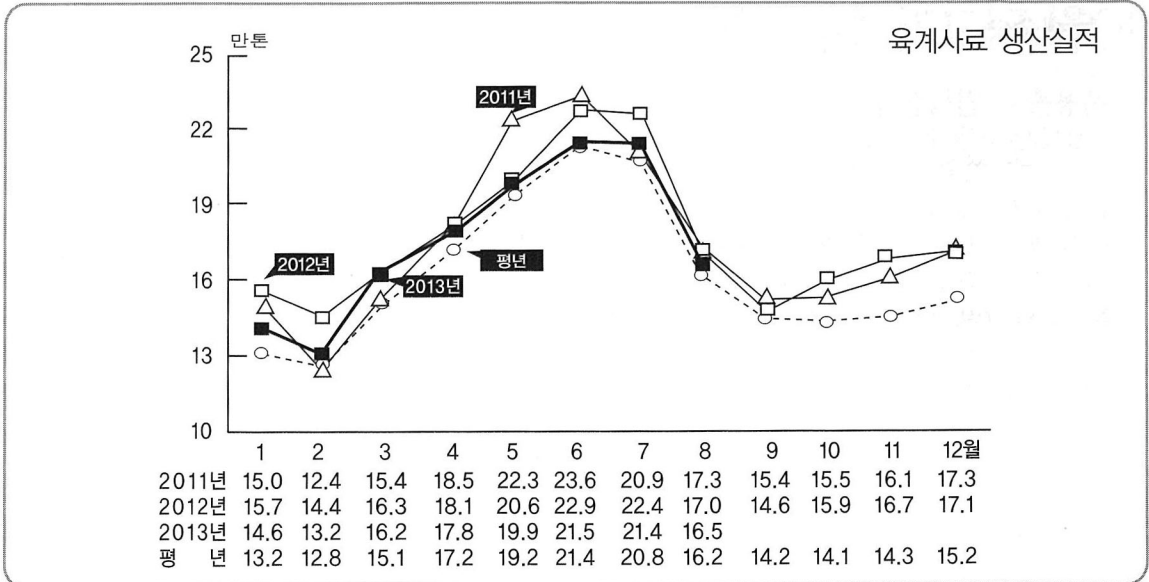
- 2013년 8월 육용종계 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38.6% 증가
- 2013년 8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77만4천7백수로 전년동기(55만9천수) 대비 38.6% 증가했으며, 이는 평년 수준(64만8천수) 대비 19.5% 증가한 수준이다(7월 50만5천수 대비 53.5% 증가).
-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8월까지의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했으나 4월부터는 다시 종계 입식수수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가 되고 있어서 생산에 본격적으로 가담하는 2013년 4/4분기 이후에는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계 사육수수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695만수로 추정되고 있는데 2/4분기 이후 종계입식 증가로 인해 종계 사육수수가 전년대비 늘어나고 말복 전후 폭염피해로 인한 노계 계군의 생산성 하락과 육용 종계 도태로 성계의 사육수수는 전년대비 4.0% 감소로 산란계군의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주 : 평년은 2008~2012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주자료 : 대한양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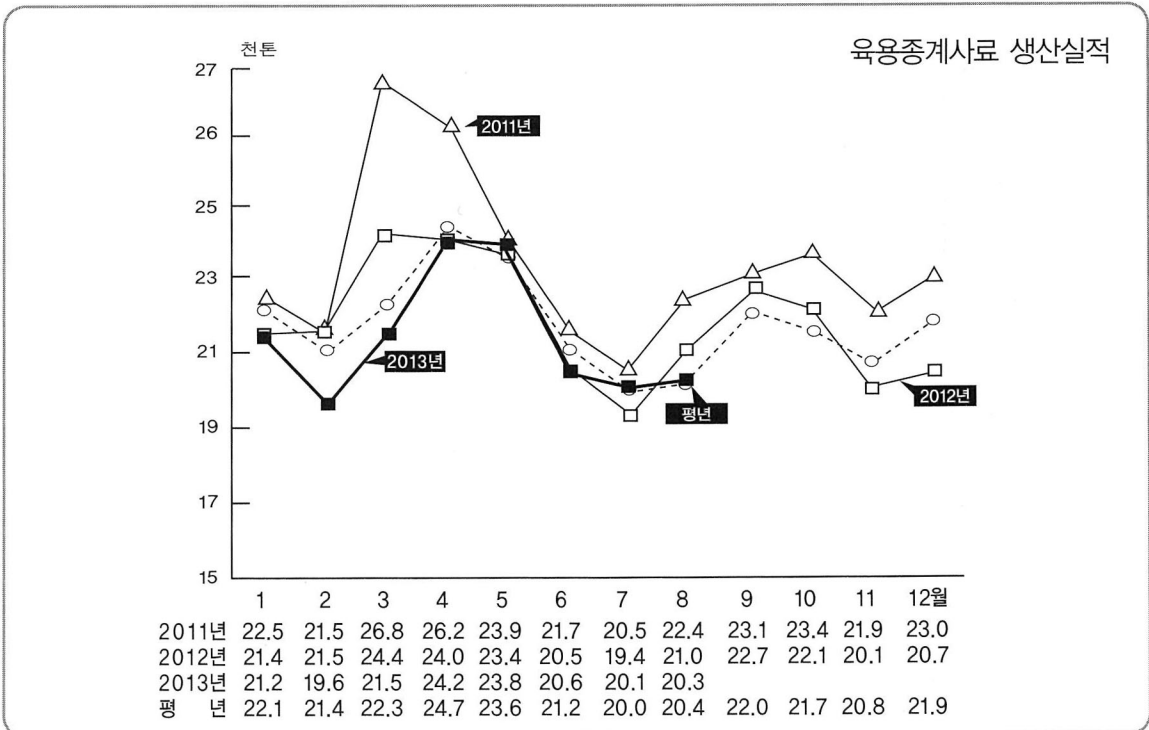
2. 배합사료 생산동향

- 10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감소한 수준 전망
- 10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8월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20,346톤으로 전년동월(21,045톤) 대비 3.3% 감소했으며, 전월(20,123톤) 대비해서는 1.1% 증가했다. 이는 폭염에 따른 폐사 증가와 증체 지연, 출하 일령이 늦어져 종계의 사육성적 및 사료요구율 등이 하락되어 사료섭취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감소했으며 노계계군 성적저하로 종계 사육수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8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164,899톤으로 전년동월(170,160톤) 대비 3.1% 감소했으며, 전월(213,597톤) 대비해서는 22.8% 감소했다. 8월에는 병아리 발생률이 전년보다 하락 및 병아리 생산 감소와 육계 생산성 소폭 증가로 육계 사육 마리수가 전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 사료생산량은 감소했다. 또한 병아리 생산량 감소로 육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 평년은 2008~2012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주 : 평년은 2008~2012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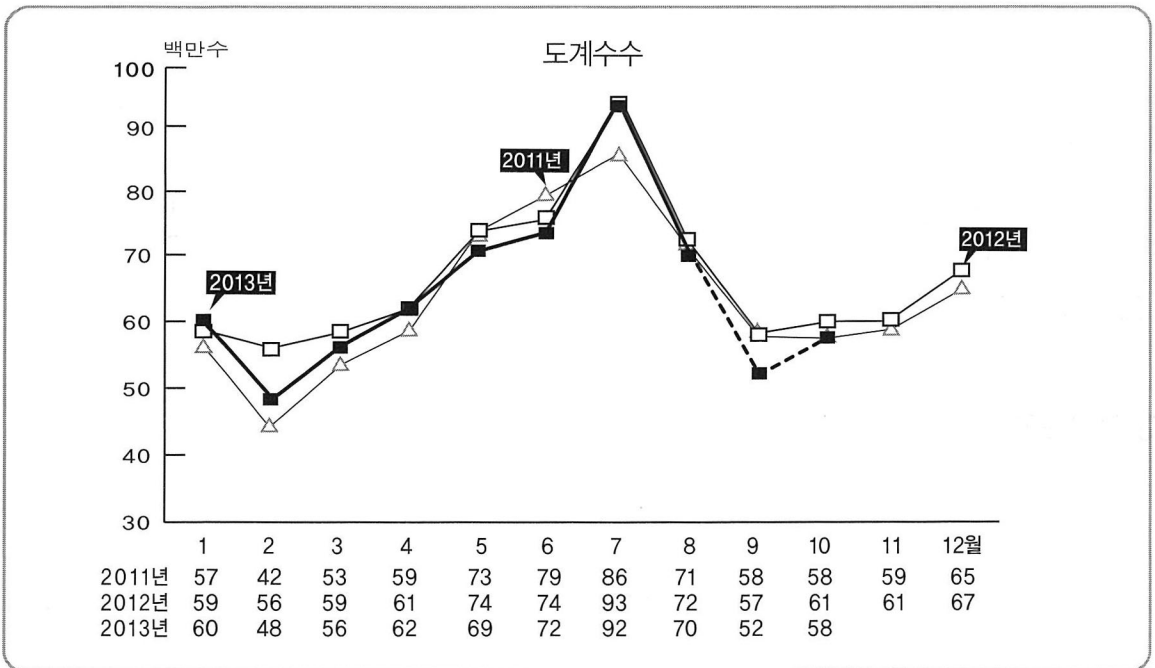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 도계수수

● 10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5.2% 감소할 전망

- 지난 9월의 도계수수는 5,197만수로 전년동월(5,686만수) 대비 8.6% 감소했으며, 전월(7,017만수) 대비 25.9% 감소했다.
- 10월의 날씨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고 중순부터 이어지는 단풍놀이로 인해 일부 수요가 예상되나 긴 추석연휴로 입식물량이 조절될 것으로 보여지며 8월 폭염에 따른 병아리 감소와 육계 사육마리수 감소가 예상되고 냉동비축 물량 감소와 수입 닭고기 정체로 인해 닭고기 수요 증가 요인이 상쇄가 예상되어 도계수수는 9월보다 11.9% 증가한 5,814만수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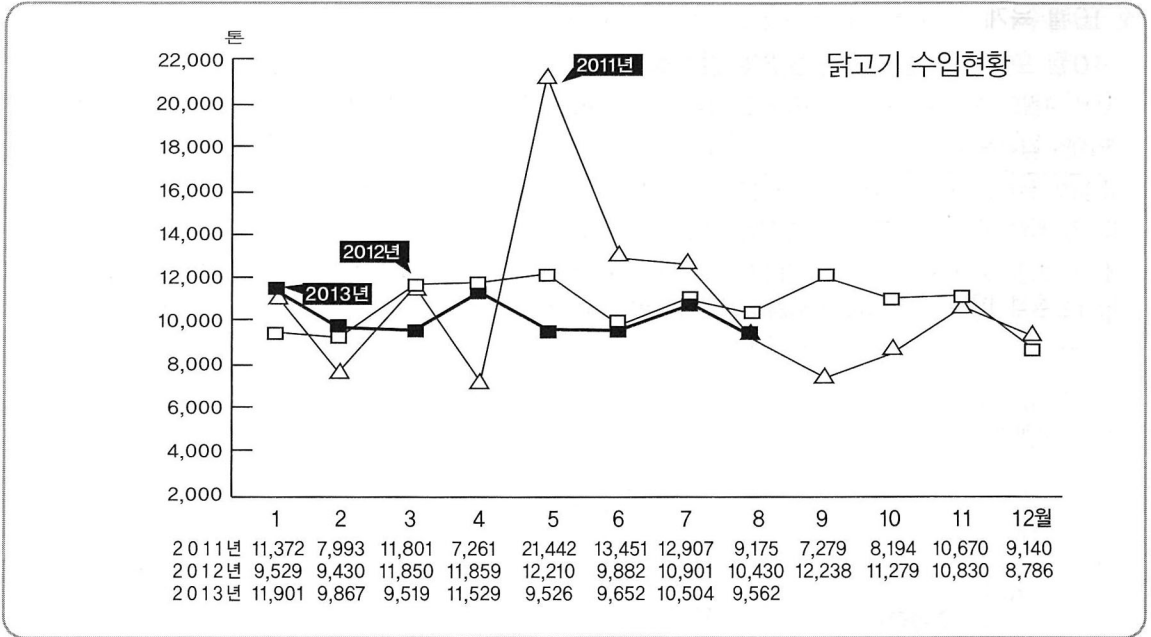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3년 8~9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

4. 닭고기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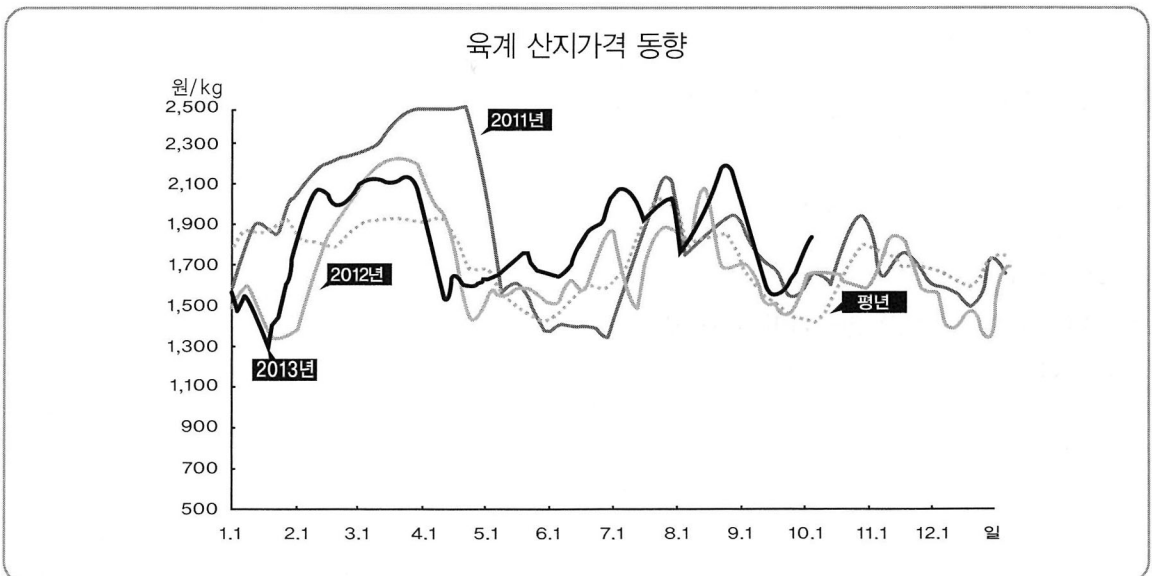
● 10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감소 예상

- 지난 8월에는 9,562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10,430톤) 대비 8.3% 감소했으며, 전월(10,504톤) 대비해서도 9.0% 감소했다. 검역기준 수입량은 7,992톤으로 전년동월(9,111톤) 대비 12.3% 감소했으며, 전월(8,954톤) 대비해서는 10.7% 감소했다.
- 주요 닭고기 수출국인 태국의 계육산업의 경영 애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계육 가공품 수출업체인 사아팜이 1/10수준으로 무너져 회복이 더디고, CP도 교역조건이 좋은 유럽이나 일본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다. 네덜란드 수입이 올해 처음 되었는데 날개가 부족해서 수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테스트하고 있으며 들어오더라도 많은 물량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5. 가격동향



※주 : 평년은 2008~201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 10월 육계 산지가격 평균 1,800~1,900원 전망

- 8월말 비가 오면서 날씨가 선선해지고 폭염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 증체가 원활해지고 유통 물량의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인해 가격이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추석 이후 하순에는 긴 연휴로 인해 창고를 비웠던 대형유통업체들이 물량확보에 나서 유통물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산지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여 9월(1~26일)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652원을 나타냈다(전년 9월 1,538원 보다 7.4% 상승, 평년가격 1,562원 보다는 5.8% 상승, 전월 2,011원보다 17.9% 하락).
- 10월의 날씨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고 중순부터 이어지는 단풍놀이로 인해 일부 수요가 예상되나 긴 추석연휴로 입식물량이 조절될 것으로 보여지며 8월 폭염에 따른 병아리 감소와 육계 사육마리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 냉동비축 물량 감소와 수입 닭고기 정체로 인해 닭고기 수요 증가 요인이 상쇄가 예상되어 공급량 또한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시세는 전년보다 상승한 1,800~1,9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년 10월 가격은 1,640원, 평년가격은 1,655원).

6. 수급자료

〈육계 및 삼계 입식·비축현황〉

(단위 : 천수)

기간	육계						삼계					
	입식			비축			입식			비축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8.12 ~ 8.18	8,007	7,640	95.4%	5,652	4,632	82.0%	1,576	1,159	73.5%	1,413	414	29.3%
8.19 ~ 8.25	7,442	8,488	114.1%	5,583	4,191	75.1%	1,253	1,269	101.3%	1,949	404	20.8%
8.26 ~ 9.01	7,300	8,276	113.4%	5,426	3,732	68.8%	1,142	1,393	122.0%	2,054	386	18.8%
9.02 ~ 9.08	7,595	8,368	110.2%	5,255	3,596	68.4%	1,412	1,393	98.7%	2,152	373	17.3%
9.09 ~ 9.15	7,635	8,272	108.3%	5,235	3,572	68.2%	1,504	1,349	89.7%	2,208	406	18.4%

7. 결론

- 10월에는 출하일령도 당겨지고 증체가 원활히 될 것으로 보여지며 육계 성적이 개선되고 긴 추석연휴기간 입식지연/조절 영향으로 병아리 및 사육마리수 감소가 예상되어 도계마리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방사능 수산물 대체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냉동비축물량은 전년동기대비 감소와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수준으로 예상되어 시세는 1,800원~1,9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세변동요인

구분	생산(공급) 측면	소비(수요) 측면
인상요인	- 중계 생산성 저하로 닭고기 공급량 감소	- 일본 방사능 수산물 대체 효과
하락요인	- 전년대비 도계일수 증가	- 닭고기 소비 감소세 지속